



무주군 '전북자치도 시니어체육대회' 성료

무주군은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 시니어체육대회가 지난 25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과 반딧불체육관, 무주국민체육센터, 부남면 파크골프장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선수, 대회 관계자 등 1천5백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고령화 시대 전북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활력있는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시니어체육협의회(회장 김문철)가 주최하고 각 종목별 단체에서 주관했다.

윤치병 무주군협의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기념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얻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자리"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4분기 사랑의 헌혈 27일·30일 실시

남원시와 전북혈액원은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4분기 사랑의 헌혈'을 오는 27일과 30일 실시한다.

27일은 농업기술센터(10:00~12:00)와 남원시보건소(13:30~16:00)에서, 30일은 남원시청(10:00~16:00)에서 헌혈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헌혈은 긴 추석 연휴로 인해 헌혈 참여가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헌혈 전에는 △전날 음주 자제 △최소 4시간 이상 숙면 △2식 이상 공복 시 헌혈 불가 등 기본 유의사항을 지켜야 하며, 헌혈 당일 아침 식사 후 참여해야 한다.

참여자에게는 남원사랑상품권 1만원권과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발전위 정기회의 개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23일, 남원소방서 회의실에서 소방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남원소방서장과 김학경 소방발전위원장, 위원 16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및 소방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 보고 △지역 내 화재·재난 대응체계 강화방안 △취약계층 안전관리 지원 확대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승현 서장은 "소방발전위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운봉교회 정현성 목사, 매월 사랑의 반찬 나눔

남원시 운봉읍을 관제하는 관내 운봉교회 정현성 목사가 지역내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식사 편의를 위해 매월 '사랑의 반찬(국)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성 목사는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국 3~4인분 분량을 직접 준비해 총 16가구에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가정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묻고 복지 연계가 필요한 가정을 살펴는 세심한 돌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정 목사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실질적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으며, 이은주 운봉읍장은 "운봉교회와 정현성 목사님의 꾸준한 나눔 활동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감사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포스코이앤씨 직원들 자원봉사활동 '눈길'

제15회 얼굴없는 천사축제 성료... 자원봉사자들 배시지원·정리정돈 실시

'제15회 얼굴없는 천사축제'가 지난 24일부터 26까지 3일간 노송동 천사공원 일원에서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수천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축제는 얼굴없는 천사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노동식) 주최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나눔과 공동체의 축제로 26일까지 사흘간 이어졌다.

올해로 15화제를 맞은 얼굴없는 천사축제는 2000년부터 이어져 온 익명의 기부자 '얼굴없는 천사'의 송고한 나눔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끈 것은 포스코이앤씨 서부개발(단장 김명준)의 기차촌재개발 아파트 현장에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배식지원 및 정리정돈을 실시한 점이 부각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졌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글·그림 시상대회 및 기차촌재개발 아파트 최진영 현장소장이 시상상을 수상하는 등 유공시민 표창, 천사봉사상 시상 등도 함께 진행됐다.

우시장과 조직위원장이 참여한 천사저금통 퍼포먼스와 비빔밥 퍼포먼스가 펼쳐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비빔밥 나눔 중심,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권희성 기자



행운권 추첨 등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노동식 얼굴없는 천사축제 조직위원장은 "오늘의 축제가 얼굴없는 천사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어 전주를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최진영 현장소장은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을 널리 기리기 위해 이뤄지는 축제가 되도록 전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축제를 비롯한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제29회 노인의날 기념 제8회 위풍당당 전국실버가요제 성료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본부가 주최하는 '제29회 노인의날 기념 제8회 위풍당당 전국실버가요제'가 지난 22일 풍남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가요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성희 제전위원장, 김양옥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회장, 황금석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이사장, 김정대 대한가수협회 전북회장, 구재영 흥보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등 내빈들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가요제에 참가한 49명 중 12명이 이날 본선에 올라 자신의 기량을 발휘했다.

이번 가요제 대상의 영예는 김창갑(진안)씨에게로 돌아갔다. 양해운(경남 밀양)씨는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장숙자(광주광역시)씨와 박진환(충남 천안)씨가 우수상을, 이창희(경남 진주)씨와 김효숙(전남 영암)씨는 우등상을 받았다.

이어, 남문순(광주광역시)씨와 박오목(익산)씨가 장려상을 수상받았으며, 이옥단(전주)씨와 양귀자(전주)씨는 인기상을 수상받았다.

실버상 수상자는 한원석(김제)씨, 특별상 수상자는 유자



(전주)씨이다.

가요제와 함께 진행된 공로 표창 수여식에서 김성희 제전위원장과 가수 이수정씨가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강정원씨는 도지사 표창을, 백현규씨는 이성운 국회의원 표창을, 정영숙씨는 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어, 김연경씨는 전주시장 표창을, 김미정씨는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유자씨는 전주매일신문사 사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수의영상의학과 동문, 후배 위해 5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영상의학과 대학원 '수의영상진단실'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연구실에서 함께 공부하며 인연을 맺은 7명의 동문이 마음을 모아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했.

지난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기부에 참여한 동문은 김지현·김근하·김태경·조규민·추동혁·이정민·한준호·김예린 수의사로,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남원시,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등 소진예방 교육

남원시는 지난 23일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및 민·관 협력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독사례 이해 및 소진 예방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중독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사례관리 현장에서 더 전문적이고 공감적인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넷플릭스 화제작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작가로 잘 알려진 이라하 작가를 초청, 작가의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중독의 심리적 기제와 회복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으며, 사례관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중독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회복 중심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통동 등, 취약계층에 전등 무선리모컨 설치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와 중앙일렉과워(대표 신창섭)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발굴한 거동불편 취약계층 총 20가구에 전등 무선리모컨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주)중앙일렉과워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전등 무선리모컨 설치에 필요로 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받아 시행하였으며, 어두운 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한 어르신은 "가동이 불편해 저녁에 불을 켜고 끄는 일이 늘 불안하고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리모컨으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통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근현대문화유산 재발견 연구회, 최종 보고회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근현대문화유산 재발견 연구회'(대표 이도형)는 지난 22일 정읍시 근현대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근현대문화유산 재발견 연구회는 이도형 대표의원과 김승범, 한산비 의원이 함께 지역 내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정읍시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연구회는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한 주요 유산의 활용 방향과 정책 제언을 함께 검토했다.

이도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후속 논의와 정책 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LPPS 지성은 대표, 김제시 고흥사랑 3년 연속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고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500만원씩 기부하던 (유)LPPS(대표 지성은)가 올해는 지정기부사업인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에 고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 지정기부사업인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일시·긴급 돌봄이 필요한 6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6월까지 1년 운영비인 3억 5천 만원을 목표로 모금 진행중이다.

지성은 대표는 "김제시에서 지정기부사업으로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선정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갑작스러운 육아 공백을 공공돌봄으로 채워줄 수 있는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꼭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를 위해 매년 고흥사랑기부를 해주시는 지성은 대표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무주군,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 개최

'2025년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24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귀뚜라미 장학금은 무주군 지역 내 중·고등학교 가운데 학업 우수, 체능 및 기술(능) 분야 우수, 저소득층, 모범 학생 등을 추천받아 선발한 인재들로,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이날 중학생 50명에게 각각 50만 원, 고등학교 25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은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인재를 키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크다"면서 "올해의 주인공인 무주군 학생 모두가 각자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길 바란다"고 전했다.

'귀뚜라미 장학사업'은 귀뚜라미그룹 창업주인 최진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귀뚜라미문화재단은 2024년에도 무주군 학생 45명(중학생 30명, 고등학교 15명)에게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황인홍 군수는 이날 최진민 회장에게 "무주 아이들에게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돼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무주군 명예 군민증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전문선 기자